

캐나다 정권교체와 DDA 협상동향

김 태 곤*

캐나다 하원은 2005년 11월 말 최대 야당인 보수당이 제출한 내각불신임안 가결로 총선에 돌입했다. 잔 크레티앵 정권 시대의 부정의혹이 발단이 되어 지난 1월 23일 치러진 이번 총선은 12년 간의 자유당 정권에 마침표를 찍고,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다당제 정치체제, 강한 지역성, 인접 미국의 존재, 프랑스계 주민의 발언력 등 캐나다의 정치풍토에서 이번 총선 결과가 캐나다 농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자유당이 낙농과 가금류 등 국내용 농산물의 주산지인 동부(퀘벡주, 온타리오주)를 지지기반으로 프랑스계 주민으로부터 일정한 지지를 얻고 있는 반면, 새롭게 집권당이 된 보수당은 전통적으로는 자유당과 마찬가지로 동부를 지지기반으로 하지만, 지난번 선거에서 정권 탈락 이후 다른 정당과 합종연횡을 반복하여 서부에서 세력을 확대해 왔다. 이 지역은 축산, 소맥 등 유력한 수출품목을 보유한 알버타주, 사스카추완주, 매니토바주 등이며, 이렇게 구분되는 정치와 농업의 동서 분포는 DDA 농업협상에서 캐나다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대변하고 있다.

또한 크레티 앵 정권 때부터 이라크 문제나 군사정책 등에서 미국과 거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aegon@krei.re.kr 02-3299-4241

를 둔 자유당 정책에 대해 보수당은 친미적 정권운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면에서는 자유당 정권은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광우병, 캐나다산 소맥의 보조금에 관한 통상문제로 미국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에 보수당 정권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추진했다. 이 협정은 보수당 정권 하에서 합의·서명에 이르렀으나, 그 후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93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패하여 자유당 정권 하에서 1994년 협정이 발효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캐나다 총선 이후 국내정세 변화가 DDA 농업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1. 농업협상에 있어서 입장차이의 배경

캐나다는 2004년 실적으로 돼지고기 세계 3위, 소고기 5위, 소맥 3위의 수출국이다. 이들 수출물품 생산지역은 돼지고기가 퀘벡주와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서부에서 대략 7대 5 정도의 분포로 생산되는 한편, 돼지고기와 소맥은 서부의 알버타주, 사스카추완주, 매니토바주에서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산물 수출대국으로서의 측면이 있는 한편, 캐나다는 국내용 물품에 대해서는 생산할당에 따라 출하 및 판매규제를 하는 공급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공급관리로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CAIS와 같은 소득안정대책으로 농가소득 확보를 강구하는 것이 공급관리제도의 기본적인 틀이다.

현재 실시되는 공급관리제도의 대상은 낙농, 가금, 계란 등 5개 품목이며, 이들 'SM5'(Supply Management 5개 품목) 생산의 대부분은 국내용 물품이기도 하여 대소비지에 가깝고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퀘벡주, 온타리오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공급관리품목에 대한 쿼터초과 관세율

유제품	닭고기·계란
299%	238%

주 : 최고 세율

또한 이 제도는 당해 물품의 국경조치 없이는 성립할 수 없고, UR 협정을 근거로 수입할당제도에서 관세할당제도로 이행한 이들 품목에는 현재 수입금지적인 고율의 쿼터초과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특수법인인 캐나다소맥협회(Canadian Wheat Board, 매나토바주 위니펙에 본부)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맥의 독점적 판매기관으로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집하·판매를 전담하고 있고, 국외 수출에 대해 수출국영무역기업의 역할을 하고있다.

2. 총선에서의 농정을 둘러싼 쟁점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자유당이 단독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 것에 의해, 초반부터 정권교체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었던 이번 총선에서는 자유당 반대표를 노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론을 논할 수 있는 당으로서 선거전을 끌고 나가고자 하는 보수당의 의도와 농업을 쟁점의 하나로 내세우고 싶은 농업단체의 의도 등에 의해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특히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환경대책과 식품 안전성 규제의 부담, 수송비와 세금 등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농가경영의 수익성 악화가 문제가 되는 한편,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이 농가수익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고, DDA 협상과 NAFTA, 새로운 양자간 협정에 대한 정부의 리더십에 농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2005년 1월 13일 농업부 장관 및 주요 정당의 농업정책 책임자가 참가한 공개토론회가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개최되었고, 이것이 TV에 중계되었다. 자유당에서 현직 장관인 앤디 미첼씨, 보수당의 농업정책담당 다이안 펜데씨 외 2명(신민주당, 퀘백당)이 참가한 이 토론회 발언을 비교하면 자유당과 보수당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토론회 가운데 DDA 협상과 관련한 부분을 모아 보면, 시장접근에 주목하는 보수당과 공급관리제도를 내세워 타협점을 찾으려 하는 캐나다 정부의 전략이 드러난다.

표 2 농업정책에 대한 자유당과 보수당의 견해 비교

	자유당	보수당
공급관리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시장을 지향하는 농민에게 공급관리제도와 소맥위원회 등을 통한 보호를 향후에도 유지 ○소맥위원회 운영 등은 위원회 자주성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관리제도는 유지 ○소맥위원회는 생산자 참가를 선택제로 하고, 판매에 생산자의 재량이 반영되도록 운영 개선
농가 소득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CAIS 정책 확충과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소득대책과 재해대책 분리, 재해대책 지불의 신속화 등 CAIS 정책의 근본적 개혁 ○통상분쟁에 기인하는 농가 손해를 재해대책으로 보상 ○농산물가격 하락에 따른 5억 달러의 지원대책 강구
WTO대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시장을 노리는 농민에게 시장접근 확대, 국내보조 감축, 수출보조금 철폐를 통한 평등한 경쟁기회 확보 ○한편, 자국 내 시장시스템(공급관리제도, 소맥위원회)을 선택할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소득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시장접근개선의 적극적 추구 ○협상의 발언력 확대를 위한 주장에 탄력 부여 ○수치목표를 포함한 에탄올 바이오 디젤정책 강화

<표 2>에서와 같이 자유당의 미첼 장관은 주요협상 3분야에서의 주장과 ‘캐나다 농민이 국내시장 시스템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함께 들며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수당은 ‘캐나다의 국제적 발언력 저하는 간과할 수 없다’, ‘우선 시장접근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미국 등 협상 주요 상대국과의 관계를 구축해 캐나다의 협상력 증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민주당은 국내시장의 관리체제도 중요하고 외국에 대한 접근개선도 중요하지만 ‘협상의 입장을 명확히 하여 다수와 공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퀘백당은 ‘정부는 수출품목의 시장접근을 위해 공급관리품목 국경조치에서 타협하려고 하고 있다’, ‘칸쿰 각료회의에서는 타협 일보 직전까지 갔다’며 정부 전략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3. 종합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캐나다 협상의 발언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널리 공유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보수당은 미국과의 연대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신민주당은 뉴질랜드와의 연대에 시사적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한 미첼 장관의 답변은 ‘최종합의를 위해 민감품목이 관건이다. 이를 위한 연대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흥미를 더하고 있다.

한편 지난 홍콩 각료회의에서 CFA(캐나다농민연맹)은 민감품목에 대한 쿼터초과 세율 인하 및 구간 방식에 의한 관세 감축과 민감품목 대우와의 연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06년 4월 말 세부원칙 확립을 위해 시장접근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감품목은 전체 관세품목의 14%가 필요’(CFA)하다는 캐나다의 사정 등이 향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료 : [http : //www.zenchu-ja.org.jp](http://www.zenchu-ja.org.jp)